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8월 30일(금)
... (음력 8월1일) ...

Пятница
30 августа 2019г.
№ 34(11685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2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올 74주년 종전 기념일에 사할린에서 여러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9월 2일 새 학기 출발

지난 28일(수) 기자회견을 가진 사할린주 교육부 나탈리야 무라쇼와 장관은 주내 일반학교 학생 수가 증가한 약 5만8천 명이 9월 2일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 학교 수업을 받게 되고 그중 6000여 명은 1학년 신입생들이라며 학생 수는 작년보다 큰 수치라고 알렸다.

일반학교 교육을 받고 6월에 9학년을 졸업한 학생 3500여 명(9학년 총 졸업생의 65%)은 10학년에 진학하고, 주내 직업전문교육기관에 학생 1628명이 입학했다.

사할린 및 쿠릴열도들에서 161개 학교, 170개 유치원, 11개 보충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중등전문학교의 학교 건물이 시설 검사를 받고 새 학기에 학생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다.

교육 시설 개건 문제로 9개 유치원과 1개 학교가 9월에 학생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올 새학기 준비에는 30억 루블리를 지급했는데 그중 22억 루블리는 개건 및 수리작업에, 나머지는 교육, 실험 및 스포츠 장비 구입에 지급했다. 지방자치체 요청에 따라 약 2억루블리는 645개 학교의 교과서 구입으로 운용되었다.

외과 부문 논의와 실습을 위한 극동지역 외과의사회 개최

8월 28-29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회 극동지역 외과의사회가 개최되었다. 극동지역의 외과의들과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대된 외과 전문의들이 사할린으로 모였다. 의사들은 현존 문제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의료계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에는 국내 우수외과의들의 논문 발표를 하고 외과의들의 응급수술 경험을 공유하고 자했다. 세계적으로 큰 절개수술 없이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적은 최소한의 침습방식을 이용한 수술을 환자들도 선호하고 있다.

28일 개막 행사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사할린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환영하며 의료계 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종합 행사를 진행하고 의료지원의 접근성과 질적 개선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첫날 의사회의 활동과 간접의료를 논하며 의사들의 정기적 경험 공유와 교류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날에는 실습으로 오하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수술 촬영을 공유했다.

9월 1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철도 운행 다시 시작

<사할린>여객회사가 9월 1일부터 전국 기준에 따른 철도 폭을 넓히는 작업으로 인해 중단된 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노글리키-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 유즈노사할린스크-토마리-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체호브-토마리,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

9월 2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축하문

경애하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 여러분!

사할린주 정부를 대표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이 기념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해방과 이후 사할린주 형성은 역사상 대규모 대전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후 수천의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사할린 지역은 개발되었고, 사업이 시작되고, 주택이 건설되고, 유치원과 학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할린주로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찾아와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살기에 더욱 편안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우들이 많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고개 숙여 원로 참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해방 참전영웅들에게는 찬란한 기념이 되시길 바라며,

친애하는 여러분의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 권한 대행)

사할린주, 석유가스 분야에 3557명 근무

러시아에서 9월의 첫 주는 석유·가스 및 연료 산업 근로자들의 날로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가스 및 석유 전문회사 대표들의 명절이다. 석유·가스 분야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대규모 활성화해 개발하는 분야 중 하나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가스 응축수를 포함한 원유 생산량은 1151만 3000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5% 증가했으며, 천연 및 관련 가스 생산량은 170억 5,300만 m³ (작년 같은 시기보다 8.3% 감소)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종사하는 기관 사원 수는 3557명에 달했는데 이는 주내 총 기관 사원 수의 2%이고, 광업에 종사하는 기관 사원 수의 34.8%에 해당했다.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45만8400루블리에 달했는데 1월-7월에는 20억 6700만 kWh의 전기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시기에 비해 3.4% 감소한 수치다.

주요 전력 생산량(총 발전량의 51%)은 열병합 발전소(CHP)가 생산한다. 단열 화력 발전소는 36.8%, 기타 발전소(가스 터빈, 디젤, 블럭 발전소)는 8.4%, 응축 발전소는 총 발전량의 3.5%를 생산한다.

같은 시기에 열에너지는 약 340만 3000Gcal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3% 감소되었다. 보일러는 열에너지의 약 45%를 공급하고 화력 발전소는 35%를 생산한다.

전기에너지, 가스 및 증기, 에어컨 공기 공급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원 수는 상반기에 8363명으로, 이는 총 주내 기관들의 사원 수의 4.7%가 된다. 018년에 비해 1.6% 인상되었다.

사원들의 월평균 임금은 69,885루블(2018년 상반기에 비해 5.5% 증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주내 평균임금 수준보다 17% 적다.

가스 응축수를 포함한 원유 추출과 관련된 기관들의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610억 루블리(총 투자의 70.6%), 석탄 채굴에는 36억 루블리(총 투자액의 4.2%), 전기 에너지, 가스 및 증기, 에어컨에는 11억 루블리(총 투자액의 1.2%)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 같은 시기에 비해 석탄 채굴 및 전기에너지, 가스 및 증기, 에어컨 공급과 관련된 수익성이 높은 업체의 비율이 50%로 증가했고 수익성이 높은 석유 및 가스 생산 업체의 비율은 100%에서 83%로 감소했다고 사할린주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에 13번째 <대구의 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진행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2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복 74주년 기념, 한려 수교 29주년을 맞아 제13회 <대구의 밤>행사가 개최되었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와 사할린주한인협회, 주한인여성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 행사는 동포 1,2세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 대표단은 이미 14번째 사할린을 찾아 해마다 <대구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구 청년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이곳의 많은 동포들을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꽤 많아졌다.

이번 행사의 1부는 하태균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회장이 직접 진행했다. 주최 측과 후원 측, 그리고 행사를 찾은 귀빈 여러분도 소개했다. 물론 이번

에 사할린을 찾아온 7명의 대구 대표단도 동포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대구 손님들과 행사참가자들을 환영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은 동포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 위대 행사를 서로를 가깝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매일신문 배성훈 디지털 국장은 사할린에 있는 동안 한인 어르신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사할린에 오고 싶다고 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어려운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현재 사할린에 아리랑이 울려 퍼져나가는 희망의 땅으로 변화하는 것이 실감난다며 동포들에게 러시아말로 사랑을 고백했다.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대표단은 처음 1996년에 사할린을 다녀갔고 하태균 회장은 처음 2008년에 이곳 방문한 후부터 대구 청년들과 함께 해마다 방문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사할린에 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손도 잡고, 식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한 번의 행동이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사할린 동포들에게 빛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난 11년 동안 다녀갔던 수많은 청년들이 사할린을 기억하고 있고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그 힘든 어려움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 땅에는 다른 도시보다 조금은 더 사할린의 역사를, 사할린 동포여러분들의 그 삶을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역사는 내일, 앞으로의 역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하고 그래서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숙제에 대구 청년들이, 대구 사람들이 아주 작지만 이렇게 행동 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태균 회장이 말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대구 사람들과 대구 청년들이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힘들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 회장이 덧붙였다.

또한 하태균 회장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사할린의 밤>행사에 사할린주한인협회 관계자들을 초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사할린 황금의 목소리 김경호 가수의 <멀고도 가까운 한국>노래와 한국 노래 민들레, <하늘>타악기팀의 북 난타 공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할머니 무용단의 우아한 무대, 강팔용 가수의 공연이 행사장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동포들은 대구 측의 김재용 금부모터스 대표의 노래 실력도 높게 평가했다.

주여성회 회원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맛있는 밥상,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꽃, 즐거운 춤과 노래소리로 모인 참석자들의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대구대표단은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을 비롯해 역사 탐방을 하고, 22일(목) 새고려신문사를 찾아 한민족의 역사를 알아보고 창간 70주년 축하했다.

(김기윤, 배순신)

이모저모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첫 '영화의 밤' 개최

8월 24일 17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 전국 <영화의 밤>행사에 처음 참가 행사를 열었다. 악천후에도 아랑곳없이 행사를 개최했다. <영화를 관람하러!> 전시회 개최는 이 행사의 가장 주요 부분으로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영화망과 발전사를 알리는 사할린 영화·오락연맹, 노글리키 향토박물관과 주 기금으로 개최되었다. 동시에 마련된 몇몇 행사장에 방문객들은 원하는 활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영화와 만화영화 관람, 영화 관련 퀴즈대회, 음악인의 공연과 무용단의 춤을 관람, 플래시몹에 참가하고, 관람 시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기도 하고, 활동교실에 참가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впервые провел "Ночь кино"

Впервые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кино". Плохая погода не помешала проведе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Самой яркой частью акции стало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Пошли в кино!" из фондов областного и Ноглик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их музеев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торая знакомит с историей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киносети в регионе с 1920-х годов до наших дней.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ботали несколько площадок, где каждый гость нашел себе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можно было по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и кинофильмы,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киновикторин, восхититься выступлениями музы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флешмоба, послушать экскурсоводов, следуя по экспозициям, и задать им вопросы, посет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사할린에서 첫 청년 모노드라마 경연 개최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은 연극예술 애호가들과 14세-25세 연령의 연극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말, 연극, 체호프> 체호프의 작품에 따른 모노드라마 경연을 개최한다. 이 경연은 극장의 해를 맞아 도서관이 참여하는 <사할린으로 시베리아까지 체험의 경로로> 지역 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연에 참가 희망자는 10월 1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자신의 모노드라마 동영상 주 일반과학 도서관 독서센터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chtenie@libsakh.ru로 제출해야 한다.

시상식은 10월 17일 14시 주 일반과학도서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경연의 우승자들은 주최 측의 초청으로 자신의 작품을 공식적으로 무대에 올릴 기회를 갖게 된다. 총결과에 대한 정보는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신청서 양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https://libsakh.ru/chitateljam/konkursy-i-proekty/slovo-teatr-chekhov/>).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ведут молодежный конкурс моноспектаклей

Конкурс моноспектаклей по произведениям Чехова "Слово. Театр. Чехов." организу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любителей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участников театральных студий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25 лет.

Конкурс приурочен к Году театра и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участия библиотеки в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акции "Маршрутом Чехова по Сибири на Сахалин".

Заявку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и видеозапись моноспектакля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до 1 октября в центр чтения СахОУНБ (второй этаж) или отправить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chtenie@libsakh.ru,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Награждение призеров состоится 17 октября в 14:00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на сцене перед публикой.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тогах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Положение о конкурсе и форма заявки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https://libsakh.ru/chitateljam/konkursy-i-proekty/slovo-yeatr-chekhov/>).

"사할린 품질"경연대회 총결산

<2019년 사할린 품질> 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종료되었다.

경연 마무리 단계로 서민 소비물품 전시회를 열었다. <시티몰> 종합쇼핑센터에서 열린 전시회를 방문한 고객들은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품들을 시식하며 사할린 식품생산업체들 중 우수식품 선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할린 품질>경연대회는 7월부터 시작한 가운데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사할린주 상점들에서 지역 생산 식품의 구매 관찰이 진행되었고 시식 식품의 품질을 식품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 전문 식품평가위원들은 사할린 14개 지역에서 49개 업체들이 출품한 유제품, 제빵제품, 생선제품 등 92개의 시식재료들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제빵 부문에서 코르사코프의 제빵업체

의 빗금바툰빵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1등급 밀가루 빵> 부문에서는 홈스크의 제빵업체가 우승했다. 제과 부문에서 제과,제당 애호가들이 믿고 찾는 '콘지제르스카야 라브카(제과점)'의 제과(머쉬멜로우)가 우수제품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 경쟁에서 <크라콥스코이> 반혼제 소시지 우수 생산 부문에서 '사할린스크' 소시지 제조업체가 1위를 차지, <1등급 식당, 삶은 소시지> 부문에서 한 업체가 1위를 차지했다.

<훈제 닭날개> 부문에서는 개인 사업자 콤초바가 수상했다. 우수<저온살균 우유> 부문은 생산자 사빈 코프가 수상, <스메타나>부문에는 '프리야' 농산업체와 '지미나' 농축산업체 외에 찾지 못했다. 사할린 우수 <케피르>부문에는 개인 생산자인 사빈코프, 그루쉬카, 류베네츠키가 차지했다. 가장 우수 품질의 서커시안 치즈(아디게이스키)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농장에서 찾았다. 연어알 생산에 선두주자는 '쿠릴스키 어로민' 업체와 '파르사흐' 업체가 1위를 차지했다.

우수 <극동 냉장 훈제고등어>생선 통조림은 '메리디안'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키로브 협동어회사가 생산하는 토마토 소스에 구운 연어 커플렛 통조림이 선두에 섰다. 이 부문에서 '안타르노예' 업체도 우승했다. 이 회사는 '달네보스토즈니(극동)' 해조 샐러드 생산에서 우수함이 인정되었다. '겨자소스에 절인 태평양 청어 슬라이스' 진공포장 부문에서 '사할린 식품산업'이 우승했다.

경연 수상자들은 자회사 생산품 광고 시 제품 표면에 <사할린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권리와 <전국 100대 우수식품> 경연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завершился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 2019". Его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этапом стала выставка товаров народ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Экспозиция развернулась в стенах торговог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ити Молл".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здесь свежую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выбор — лучшие образцы островного пищедрома.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стартовал в июле и проходил в три этапа. Сначала проводилась контрольная за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островн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Качество образцов оценивали эксперты дегустационных советов.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оценила 92 образца мясомолочной, хлебобулочной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от 49 предприятий из 14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한국 첫 여행

에카테리나 코슬로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카테리나 코슬로바라고 합니다. 하바로프스크의 태평양 국립대학교, "언어번역학 및 국제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다니고, 열여덟 살이며, 전공은 통번역학과 1학년생입니다.

저는 사할린 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코르사코프시에서 보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의 성함은 김수일이었고 러시아 이름이 김 알로나 미하일로브나입니다. 김 선생님께 '한국어를 가르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첫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3일에 한국으로 여행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국교육원 주최로 우리 모든 사할린 학생들은 가지고 싶었던 항공권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여행 프로그램의 대표자들이 우리를 마중했습니다. 체류기간 2주일 동안이라고 했으며 우리는 캠프가 위치한 작은 산업도시 구미로 갔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호스텔이었고 한 방에 4-6명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 전통의 본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닥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호스텔의 식당에서 한국 음식만 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스텔 직원들과 가장 짧은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 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 '얼마예요?' 라는 말들만 빠른 속도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행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공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안한 교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게임 형식으로 단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동화와 전설을 들었습니다. 한국 선생님은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가르침으로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공예를 배우며 종이로 한복 만들기 하고 나비, 무당벌레, 개미 등을 튜브로 만들고 한국어로 토막극을 만들어 출연했습니다. 나는 모든 공예품을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공예품은 여전히 저만의 한국 전용 폴더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주최 측은 우리 수업에 한국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호스텔의 체육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K-pop"과 같은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춤과 노래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의 지원과 갈채는 실제, k-pop 콘서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후, 우리는 2팀으로 나누어 스포츠 경기를 했습니다. 어떤 러시아 친구들은 한국 친구에



게 선물로 사할린의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여행할 때에 첫째로, 구미시 정부와 경상북도 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혜택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여러 대학의 안내책자를 받았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의 둘째로 한국법원과 케이블카를 방문한 후, 주최 측은 우리에게 만찬회를 준비했으며 그 곳에서 환영사와 음악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 과일,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은 맛있는 한국 칵테일을 작은 병에 담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칵테일은 내 생활에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대학생들의 가장 소중한 꿈은 방문했던 제조업 공장에서 맛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받았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한국 패스트푸드제조업체인 "농심"을 방문했을 때 국수가 몇 단계로 만들어져 나오고, 포장되는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한국의 국수를 먹으면서 여행을 기쁜 마음으로 회상했습니다.

우리 여행 방문의 다음 목표는 양로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말로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들 모두가 사할린과 쿠릴지역의 거주했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셔도 어르신들은 러시아어를 잊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옛날 코르사코프시에 살았던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과 사할린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한국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우리는 숙소에서 직접 손으로 개구리 같은 맛있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우리를 보고 기꺼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보셨습니다. 이벤트가 끝날 때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계속)

아베정권과 사할린 한인의 현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로, 원로 명예 교수 전학문 박사 현, (사) 국제문화공연교류회 고문

나는 일제의 쇼와11년(서력 1936년) 9월에 남부 사할린의 조그마한 시범 탄산 텨나이(天內) 마을 석탄 채굴 광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6남매 중 막내로 형님과 누이들에게 응석을 부리며 너무 귀찮게 구는 불량한 동생이었다. 나의 출생증명서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쇼와16년(서력 1941년) 4월 1일로 조작되어 만 5세도 채 안 되는 나이에 창씨명으로 나카무라 후미오시로 개명된 후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강제 동원되어 정착했던 토로 탄산시에 있는 일본국민심상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그때부터 일본 군국주의 교육이 시작되어 제국주의 사상과 정신을 완벽하게 익히는 인생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 당시 일본 역사 교과서 및 동화, 영화 또는 형, 누님들에게 들은 일본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제국주의 교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함대기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였다. 기습공격이 성공했다는 보도를 듣고 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 모두 "반자이(만세)"라고 외쳤다. 그 후 개전 당초 약 3주일간 삼십 상륙, 말레이 앞바다 해전의 승전, 웨이크섬 상륙, 홍콩 점령이라는 전황이 보도될 때마다 일본제국주의 우월성을 지니고 애국심과 더불어 천황에 대한 경지를 느꼈다. 그러나 차츰 일본군의 패퇴가 계속되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철부지인 나는 일본 국민으로서 공포감 외에 비통함에 잠겨 학생들과 강당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었다.

1945년 일본의 패배 후 남부 사할린은 소련군대에 점령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공산주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1947년 사할린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본국으로 귀국하였지만 한인들은 사할린에 억류되어 무고지민이 되고 말았다.

일본-소련-러시아의 정권 교체, 즉 제국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제도로 순차적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생활조건에 적응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거의 다 사할린의 동토(凍土)에 파묻혔고 고령자가 된 2세대만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만일 한반도를 향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화 정책이 없었더라면 사할린 한인들은 고통스러운 숙명과 대결이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2014년에 내가 펴낸 책 '일본 침략정신과 사할린 한인의 숙명'(나래원 출판사)에 묘사하였다.

나는 1947년 5학년 수업 중이었던 일본학교가 폐교되어 부득이 조선학교로 편입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사할린 사범학교 조선과에 입학하여 러시아어 공부를 마친 후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구 소련 과학아카데미 소속 과학연구소에서 토양 및 환경미생물학 연구에 몰두하여 순차적으로 준박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국제 토양학 및 미생물학회에 몇 차례 참석할 때마다 수많은 일본학자들과 만나 교류를 시작하였다. 일본학자들의 초대를 받아 1988년 가을(당시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진행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샌다이시 동북대학부터 시작하여 나고야, 교토, 규슈, 홋카이도대학에서 환경보전형 미생물 농법에 대한 순회 강연을 실시하였고, 1996년부터 "재팬 에코르

라스트"주식회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연구소에서 연구한 환경 및 토양 미생물과 관련된 논리적 결과를 응용화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의 결과를 일본 도쿄만 사구와 중국 학자들과 공동으로 심각한 중국의 사막화 방지 및 녹화 실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북경에서 세계평화상(WPCM) 및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그 동안 미생물 농법에 대한 책 2권을 한국어로 발간하였고 금년 초에 "미생물 농법의 패러다임(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의 위대한 활력)"란 제목으로 책을 일어로 일본 농문협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의 과학적 직업과 관련된 수많은 일본 학자 및 업자들과 밀접한 업무적 관계를 영주귀국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 제한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심각한 한일관계의 격랑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나의 파트너 및 친지들은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정치와 법률을 싫어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 투표율은 항상 50%이하이다. 예를 들면 2년 전 인구수 100만 명이나 되는 치바시를 방문했을 때 여러 군데 치바시 시장 후보들의 사진들이 거리에 붙어 있었다. 나의 친구들에게 '어떤 시장 후보를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후보들의 이름도 모르고 투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도 보통 가만히 참거나, 집회나 데모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가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중군 위안부에 대한 왜곡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전 도쿄 도지사의 침략전쟁에 대한 망언이 뉴스에 시끄럽게 방송됐지만 시청자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욕만하고 있었다. 정치가들은 대기업한테서 뺄 돈을 눈감아 주고, 야쿠자나 우익단체한테서 꼬박꼬박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취업률이 높지만 뼈빠지게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르바이트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도 많다. 눈치를 보면서 잘못을 스스로 덮고 반성한다. 정부의 힘이 약하고, 파벌싸움이 잦아 일본은 중앙 정부가 없이 지방자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할아버지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마친 후 일본군 중앙부 주요 보직을 거쳐 1933년에 육군대장, 1939년에 일본 내각 총리로 승진했다. 1944년에 조선총독에 임명되어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더 철저히 자행했다. 태평양 전쟁 후 1945년 12월 11일에 일본 주둔 미군 맥아더 사령부가 아베를 심문할 때 그는 '일본 식민정책은 한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다.'며 '한국인은 아직도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복 후 독립된 정부가 형성되어도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호에 계속)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евочка-спутник и пятнистая корова" — о той любви, что выше законов физики и биологии

Они такие разные, что, казалось бы, не могут быть вместе даже в мультфильме. Она — космический спутник "Китсат-1", упавший на Землю и превратившийся в девочку, он — начинающий музыкант Кёнчон, обращенный злыми чарами в пятнистую корову. Она услышала его песню из космоса и прилетела посмотреть, у кого же такой чудесный голос. С этого и начинается история, при воплощении котор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ер Чан Хёнчон дал своей фантазии полную свободу действий.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героев — рулон туалетной бумаги (ой, простите, потомок рода фей Мерлин)? Хорошо, пусть будет так. "Китсат-1", или, по-земному, Ильхо, носит в рюкзаке запас рук, чтобы выстреливать ими в злодея-сжигателя? Почему бы и нет. Когда заканчиваются деньги и нечем платить з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Кёнчона используют по прямому назначению, как дойную корову, и продают молоко на рынке? Да запросто.

— Боже мой, какой бред, — то и дело вздыхает девушка на заднем кресле, непонятно зачем продолжая оставаться в зале и мучить себя.

А ведь все просто: если тебе кажется, что ты слишком взрослый для таких чудес, можно в любой момент встать и уйти. Но, честно признаться, автору немного жаль искоренивших в себе мир детского сумасбродства, где любое допущение может стать реальностью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бесконечной игры, сотворения миров, поиска себя и близких по духу. Конкурсный мультфильм "Девочка-спутник и пятнистая корова", показанный на "Крае света", — о любви, и он прекрасен.

— Смотри, у меня грудь и спина одинаковые. Все равно я тебе нравлюсь?

— Да.

— У меня голова отделяется. Все равно я тебе нравлюсь?

— Да.

Но д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Кёнчон будет обнимать Ильхо взглядом, принимая ее со всеми странностями и недостатками, еще нужно добраться. Им многое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прежде чем он, заряжая ее от аккумулятора, спросит — а может, это свечение, которое видишь во время влюбленности? А она ответит — ой, извини, я газовую лампу не выключила, она мне лицо освещает. Это будет началом рождения их общего мира. Побеждая злые силы, которые забирают органы у людей, превращенных в животных, и уничтожают этих несчастных, Кёнчон и Ильхо будут становиться все ближе, так что фраза "спутник и корова — ничего из этого не выйдет" окажется неправдой. Хорошо ли это — иметь сердце, ведь каждое мгновение жизни приносит боль, задумывается девочка-спутник, но в финале волшебная сила любви и музыки конечно же оказываются сильнее.

Как вы придумали сюжет, почему именно корова, почему туалетная бумага — после показа картины в шатре Q&A прозвучали не только самые ожидаемые вопросы.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поставили режиссера в тупик, спросив, почему сделанный из бумаги костюм Кёнчона, намкнув, расползается по швам, а одежда Ильхо, тоже появившаяся по магическому велению Мерлина, оказывается водоустойчивой. Чан Хёнчон признался, что не подумал об этом, но тут же изящно вышел из ситуации, объяснив все каким-то особенным в этом случае волшебством.

— Я изначально думал о том, как человек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животное, когда закрывается его сердце, — сказал режиссер в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об идее фильма. —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если нет души. В Корее очень много начинающих авторов,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заниматься музыкой, но не могут. И когда у них не получается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их сердца закрываются. Ну а вообще, если честно, я очень люблю животных и часто их рисую.

Это первая полнометражная анимационная картина режиссера. Учиться на мультипликатора он стал в 26 л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изучал дипломатию, и двух ле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Чан Хёнчон признался, что иногда ему надоедает безумно трудоемкий процесс создания мультфильмов: интересно нарисовать один рисунок, но сделать множество его повторений с постепенным движением героя и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крайне не прост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у девочки-спутника не длинное красивое платье, как задумывалось изначально, а короткая юбка. Отрисовывать колыхания платья в 81-минутном мультфильме было бы тяжело.

Режиссер признался, что очень рад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ю работу на Сахалине, и особенно его радует то, что мультфильм сделали не титрованным, а с русской озвучкой. Благодаря стараниям сахалинских 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торые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подарили героям мультфильма голоса, "Девочка-спутника и пятнистую корову"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дети, которые еще не умеют читать (хотя ориентирован мультфильм больше на подростк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очень красивый, считает Чан Хёнчон. Он понял это давно, когда смотрел мультфильмы Юрия Норштейна.

Наталья Голубкова
ИА Сахком

Я хочу, чтобы песни звучали

Ан Бок Д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32)

В наши дни я сама часто пою эту песню, и понимаю, что эта песня о моем отце. И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поется в конце этой песни, брат все-таки вернулся в порт Пусан, мой отец в 1991 году впервые после войны через организацию Красный Крест посетил Южную Корею. Его родителе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же не было в живых, но он смог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сестрами, младшим братом.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везде встречали с глубоким почтением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одственники, односельчане, друзья детства. И, конечно же, встречи не обходились без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без знаменитой «돌아와요 부산항에».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Пришла весна на цветущий остров камелий,
А в порту Пусан только чайки уныло плачут.
Я кричу вслед лодке, плывущей к острову,
Но нет ответа от моего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Возвращайся в порт Пусан,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На этой улице где я кричал, где я звал тебя,
Я скучал по тебе, я искал тебя.
Но молчали те волны в ответ,
Что печально набегая, открывали путь.
Но вернулся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в порт Пусан.

Мой отец прожил долгую жизнь, полную тягот, нужды, лишений, отчаянной борьбы за жизнь и ушел из жизни, когда ему было 91 год. При японцах он, как и многие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был занят на тяжелейших работах в шахтах, рудниках. Жесткие японцы, не церемонясь, заставляли их работать и голодными, и больными. Помню обрывками его рассказ о тех годах неволи, когда ему постоянно хотелось есть. Когда наступал сезон нереста, и в реки Сахалина заходила красная рыба, они с товарищами почти голыми руками вылавливали в речке рыбу. Затем они варили ее в какой-то емкости на костре. Она была такая свежая, такая вкусная на вид! Но не было соли, и они, голодные, ели эту вареную пресную рыбу, спеша утолить голод, в спешке обжигая руки и рот. А еще я помню зимние вечера в нашем доме, когда отец варил в баке мелкую перемороженную картошку для свиньи, затем ставил посудину на пол остывать. Он доставал из нее эту мелочь в мундире, очищал ее и ел с большим аппетитом. Я с сестрами присоединялась к нему, и мы тоже начинали чистить и есть эту горячую картошку, сладкую на вкус. Да, отец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л, что такое голод. Я помню: он всегда очень аккуратно ел, был очень бережлив в ед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отец работал грузчиком, разгружал вручную лопатой сырую изве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он заработал туберкулез, язву желудка, у него отказали почки. Врачи пророчили ему неминуемую смерть, но он выжил, один из всех подобных больных в палате. Что же ему помогло тогда? Что его спасло от смерти? Мой отец, полуживой, еле дышащий, без конца впадающий в беспамятство, не забывал, что дома его ждут пять голодных детей и любящая жена, что он единственный кор-

милец в семье. В те дни, одиноко лежа на кровати, он твердо решил выжить и вернулся домой. Я тогда была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м ребенком, толком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не понимала,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памяти остались незамысловатые открытки с цветочками на белом фоне, которые приходили к нам по почте. Их присылал отец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он находился на лечении целых два года. Гораздо позже я поняла, что отец так выражал свою любовь к нам, обездоленным и осиротевшим без него. Нам в то врем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жилось очень нелегко, часто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сить денег в долг у соседей. Отец, став инвалидом, не отказался от работы по силам,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трудился сторожем. Люди знали его как человека непыющего, честного, неконфликтного, добросовестного в труде,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Потом он стал работать рядовым рабочим — путейцем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Ответственным отношением к труду, стремлением к знаниям он снискал к себе уважение, и со временем ему доверили бригаду рабочих, обслуживавших участок железной узкоколейной дороги Победино — Первомайск. И мы, его дети, вечерами помогали ему заполнять рабочий табель, с большим трудом учили с ним вместе правила, инструкции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монтных работ н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Уставший отец, не умея читать по-русски, почти засыпая, повторял за нами эти правила, заучивал наизусть сложно произносимые слова. А все это только укрепляло нашу семью. Как давно это было...

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как мои родители с соседями —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задушевно пели «돌아와요 부산항에». И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часто она всплывает в моей памяти. Может быть потому, что в детские годы часто ее слушала. Сейчас я уже умею читать, писать и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наю полностью текст этой песни. Став уже взрослой, я много часов проводила за книгами, изуч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 давно эту песню не слышала в чьем-либо исполнении или в записи, да и она почти уже забыта,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ежь ее, скорей всего, не знает. Но в моей душе, моей памяти она часто звучит. Я даже напеваю ее иногда. И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пою эту песню, вспоминаю об отце, человеке честном, трудолюбивом, скромном и добром.

А когда в моей жизни наступают трудные периоды, я вспоминаю, каким духовно си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был мой отец, какие, казалось бы, невыносимые трудности он сумел преодолеть! Он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своему имени — И Ган Гын, что значит «прочный», «крепкий». Также, как когда-то отец, я стараюсь творить добрые дела, делать то, что должно, как бы сложно ни было. Не один год я работала уч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школе и сейчас тоже преподаю этот язык детям в Корейск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На своих уроках я, естественно, рассказываю им о Корее и осознаю, что являюсь как бы проводником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и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Я вижу перед собой увлеченные детские лица корейцев, русских, узбеков, украинцев... И надеюсь, что дорогая мне работа — это мой скромный вклад в дело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Конечно же, на моих уроках звучат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в том числе и «돌아와요 부산항에». Я хочу, чтоб продолжали звучать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дающие силу и веру.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т.д.)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9 сентября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с 19 августа 2019 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 9:00 – 18:00

Обед :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Японию проявить чест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истории прошлог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Японию проявить чест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истории прошлого и мотивов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б экспортных ограничениях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Выступая в четверг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Япония не раскрыла истинных причин предпринятых ею действ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Какими бы они ни были,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уязвляет экономику с проблемами прошлой истории, - отметил Мун Чжэ И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опроверг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который заявил,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й конфликт вызван нарушением Сеулом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говора 1965 года.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Япония отказывается проявлять честность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не раскаивается в преступлениях прошлого, а вместо этого пытается исказить историю, нано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ред двусторонним отношениям.

В РК завершили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26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завершили двухдневные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На этот раз зона проведения учений была расширена, а их целью было обозначить стремление и готовность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но и всей мор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доль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 ним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не только ВМС и морская полиция, но и ВВС, морская пехота и сухопутные войска. С 1986 года данные учения проходили дважды в год, в основном при участии ВМС и морской полиции. Но на этот раз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учения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в связи с ухудшением отношений с Японией. Токио выступал против нынешних манёвров, считая их неприемлемыми и достойными крайнего сожаления.

BTS получила статус MTV UK Hottest Summer Superstar 2019

Известн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признание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тав обладателем титула MTV UK Hottest Summer Superstar 2019. Данный статус присваивается ежегодно на основе голосования. В этот раз среди претендентов было 50 групп и сольных певцов. За BTS было отдано 19.700 из 44 млн голос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обошли Леди Гага,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второе место с общим показателем 12 млн 700 тыс. голосов.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друг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LACKPINK – 3 млн 800 тыс. голосов.

В РК завершился пляжный сезон

25 августа в РК закрылся 21 муниципальный пляж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вою работу завершили все пляжи в шести городах и уездах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го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В этой связ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пляжного сезона. Этим летом 92 пляжа посетили 18 млн 987 тыс. человек. В 2013 году отметка составляла 25 млн 600 тыс. человек. Затем до 2017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отдыхающих превышало 20 млн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оставили цель достичь показателя в 25 млн туристов. Однако не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даже 20-миллионного уровня.

Корейцы сократят расходы на проведение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мый объём расходов на проведение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порталом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Samamin среди 2.404 трудоустроенных граждан,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потратить на праздник в среднем 350 тыс. вон или 288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22,2%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 этом среди семей снижение оказалось гораздо выше, чем среди холостых. Организаторы опроса отмечают, чт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а со стремлением максимально снижать расходы в связи с ухудшени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89,6%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расходы на пред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являются для них значительной нагрузкой. Наибольши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ы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родителям денежных подарков,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и дорогой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Между тем, 60,3%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ещение малой родины на Чхусок.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РК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3% насел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3% населения РК.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ноября общее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выросло на 0,4% или 210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51 млн 630 тыс.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выросло на 11,6% до 1 млн 650 тыс. человек. Числен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увеличилась лишь на 0,1%. 46%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К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и выходцы из Китая.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330 ты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7%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метили в Корсаков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74-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наступающей го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стоялось 25 август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КДЦ "Океан".

С праздником всех корсаковцев поздравили мэр района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а так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Те Чуль и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Обращаясь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в зале,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отметил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они внесли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на благо всего Сахали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ась тесно переплетена и с Сахалином, и с Корсаковским районом. Сегодня мы все вместе делаем наш округ красивым и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жизни. Уверен, впереди у нас с вами много общих дел,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его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Спасибо за совместный труд, — сказал в заключение мэр и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оржество продолжилось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ает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 Замеча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Сегодня мы услышал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все вместе подпевали артистам, увидели наши национальные танцы. Спасибо за праздник, —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упруги Сергей и Кристина Нам.

—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й диаспоро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тся в Корсакове впервые, — отметил И Те Чуль. — Но я думаю, что оно станет традиционным. Сахалин стал для нас второй родиной, и мы благодарны России за сохранение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Мы назвали его праздником дружб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И это символично, ведь именн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согласие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позволяют жить в мире и являются залогом благополучия стран.

Сай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32)

Числ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но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с трудом поддается подсчету.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Корейцы,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на материковую часть России, оказались вовлечёнными в разные виды, формы и способы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движности, любая из которых могла бы стать тем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и специ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амыми существенными аспектами в миграция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явились расширение ареала проживания и смена сельской среды на городскую.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взлетела до отметки 85 тысяч человек. Этот факт объясняется причин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затяжной рецессией в экономике, резким падением уровня доходов, ухуд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ростом безработиц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Южная Корея притягивает спросом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возможностью заработать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усскоязычным корейцам визу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F4 и трудовую визу H2. Выезд на заработки продолжается, а число реэмигрантов совершенно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 видимости временная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перерастает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ПМЖ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напоминала «крепостное право», так как они не имели права покидать места своей приписки. Лишь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молод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могли уезжать на учебу в вузах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ССР.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миг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а их репатриация в Японию, Южную Корею и частично в КНДР.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имелись случа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выдворе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активистов из числ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ебовавших выезда в Японию ил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ысылк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являлась своего рода наказанием этих борцов за свои права. С середины 1990-х год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между Москвой, Сеулом и Токио началась репатриаци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ую Корею. Всего переехали свыше 4 тысяч престаре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оторых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более одной тысячи умерли на земле своих предков.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чти иссякла, так как остались совсем немногие способн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а переезд. Как бы не было прискорбно, но через каких-то 20-25 лет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прекратят свое физическ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Межэтнические браки как фактор 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ачиная с 1960-х годов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этнодемограф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сред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и брак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х доля росла с каждым десятилетием и в конце 1980-х годов она составляла, например, в г. Алма-Ате около 40 процентов.

Как известно, в до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нередко были бра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японками, что дало им основание для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как члена семь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отличие от материковских, привычными оставались внутриэтнические браки. Лишь в конце 1970-х годов появляются национально-смешанные семьи и учащаются случаи заключения брак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и и материков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ановятся обычными браки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и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Наличие паспорта гражданина СССР являлось в 1945-1980-х гг.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критериев отличия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окончанию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зросл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депортированное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имело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прошли советизацию еще до 1937 года, а за годы войны своим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м трудом доказали преданность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и с них был снят ярлык «неблагонадежного народа». Отличное владени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крепкие навык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и руководящей работы,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реданност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идеалам стали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командирования численно крупной группы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совет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сниз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едлагает уменьшить для всех островных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размер ежегодных платежей на 30 процентов. Инициатива уже внесена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 У большинства островитян есть автомобили, и так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пом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семейный бюджет.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справедливо – у жителей нефтедобывающего региона должны быть привилегии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ется снизить на все легковые машины. Так, размер ежегодных платежей за авто мощностью 150 лошадиных сил уменьшится с 5285 до 3775 рублей. А за транспорт мощностью 200 лошадиных сил взнос будет сокращен с 7000 до 5000 рублей.

Такая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ой работе остров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евод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федеральное подчинение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вободить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еньги, которые раньше уходили на обслуживание главной дорожной артерии острова, теперь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 на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нужды. Например, часть средств пойдет на капремонт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частков трасс.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и снижение ставок по транспортному налогу.

Напомни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вести дорог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ворил на рабочих встречах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митрием Медведевым. Инициативу уже одобрил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анспорт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а в 2021 и 2022 годы на ее капремонт, ремонт и содержани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тупит более 1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сего 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остающегося грунтового отрезка длиной около 250 километров требуется 2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рожный фонд региона увеличили на 60 процентов, и он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го размера – 1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монт дорог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заложено 7,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Более 700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утевки в летние лаге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дителям возмещают расходы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обретенные путевки на отдых и оздоровлени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На эти цел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9 год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олее 4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няя цена путевки в островные лагеря на 21 день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о благодаря льготам из родительских кошельков оплачивается 15 процентов – примерно 7-9 тысяч рублей. Остальная сумма возвращается в виде компенсации.

– Для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тдых получается бесплатным.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100 процентов расходов, но сумм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среднюю стоимость путевки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и санатор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ясн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Ярослава Захарова.

Компенсац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е более, чем за три недели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ребенка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е чаще одного раза в год.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род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не поздне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с даты окончания отдыха ребенк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Кстати, летом на островах работали 373 лагеря – с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труда и отдыха, палаточных,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ри школах, клубах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каждый год пользуются шесть загородных стационарных лагерей: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Чайка»,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и «Восток».

12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на 400 ребят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 с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отдохнуть в Крыму. Каникулы на Черном море стали наградой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х успехи в учебе, творчестве и спорте.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м талантам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бесплатно давали путевки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 «Океан» (Владивосток), «Орленок» (Туапсе), «Смена» (Анапа), «Артек» (Гурзуф).

Все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летом смогли отдохнуть и поправить здоровье более 50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На эти це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

пальных бюджетов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на 223 миллион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лин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устанавливают цифровой рентген-комплекс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повысит качество диагностики и скорость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обследования. Аппарат приобретен на смену аналоговому рентген-комплексу с меньш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рамках реформы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ы, начатой глав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 Раньше все снималось на пленку, которую надо проявить, зафиксировать, высушить.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ий процесс, – вспоминает заведующий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Долинской ЦРБ Игорь Седачев. – Но сейчас нам доставили технику посл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 так давно аналогичный аппарат установили и в нашем стационаре, поэтому с обучением персонала проблем не возникнет.

Стоимость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около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онтаж длится уже пять дней, процесс близится к финалу.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в обновленном рентген-кабинете планируют принять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Ежедневно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нем с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45-50 человек.

Благодаря новой технике врач сможет сразу видеть результаты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компьютере у себя в кабинете. Все снимки будут архивироваться в общую базу.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новляе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выявление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 доставят четыре передвижных рентген-кабинета. Каждый из них оснащен флюорографом и маммографом. Такие комплексы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выездных беспла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Всего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выделили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Уже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225 единиц новейшей техники. На капремонт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1,2 млрд рубл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бновить внешний вид более 20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Кроме того, в 2019-м выросли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и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двое увеличен целевой набор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плачиваются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дъемные в стране – от 1,45 д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едик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6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ботнико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поздравили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Накануне Дня работника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ят 1 сентябр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цев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 че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наград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филиалов, машинистов бульдозеров и других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показавших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го труда.

– Почти со всеми я познакомился достаточно близко и очень этому рад. Ваш труд обеспечивает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 всей России.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играе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большую часть ее доходов.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работ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звивается бизнес, строится жилье, школы, больницы – десятк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обратился к виновникам торже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Желаю вам новых успехо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в жизни,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удачи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на благо нашей малой Родины!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Чибисов 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ризнанный центр нефтегазодобыч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долю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егодня приходится почти 83 процента общего объе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 53,5 процента доходо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островах открыто 82 месторождения углеводородов: 64 на суше, 18 – на шельфе.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быча нефти и конденсата достигла 19,3 миллиона тонн, а газа – более 32 миллиардов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Более 20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обеспечивают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отрасли – от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геологического изуч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до обеспечения добыч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нефти и газа.

Товары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станут дешевле

Теперь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скидки до 10

процентов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С 1 сентября н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на остальные районы.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до 10 процентов на продукты, бытовую химию, аптечные товары, при оплате нужно будет предъявить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или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имея на руках одну единственную карту с личным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м номером, имеют прав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широким спектром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Можно, к примеру, бесплат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 с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карта будет давать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област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открывает и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основные торговые сети: супермаркеты «Столичный», «Первый», «Первый семейный», «Островной», «Матрешка», супермаркет бытовой химии «Золушка», аптеки «Фармация». Перечень магазинов, участвующих в проекте,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Размер и врем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кидки кажд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устанавлива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дробности следует уточнять у продавцов в торговых сетях – партнерах проекта.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старше 65 лет, кто еще не успел оформить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лучить еди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островитяне старше 70 лет могут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МФЦ».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ой сахалинца» и «Единым проездным билетом» нового образца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11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вовлечь в проект около 34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целя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и держателей карт разработан web-портал <https://соцкарта.сахалин.онлайн>.

Курсы, посвященные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начали работу на Сахалине

29 августа начали работу курсы, посвященные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Уче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длятся три дня. Участниками курсов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к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ШГУ РАНХиГС «Основы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технологии и компетенции» стали 300 специалистов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означил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иоритетов в работ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льшую роль в этом играет развитие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бучение основам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региона. Нам важно подготовить кадры для цифров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едь это один из способов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госуслуг,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новых удобных сервисов для нас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ям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жителями и властью всех уровней, – 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в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цифров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пришел не только в дома жителей, но и в учреждения. Запущен ряд цифр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латформа стриминговых сервисов,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и другие.

В программе курсов – не только лекции.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к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ШГУ РАНХиГС Ксении Ткачевой, обучение носит ярко выраженный прак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и курсов прослушают лекции «Как тренды и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влияют на нашу жизнь»,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блематика, кадры и обз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ек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выступят бизнес-тренер Максим Паратунов, обладатель черного пояса по оптимизации бизнес-процессов (сертификация LSS) Александр Сорочан. В завершении дня пройдет тренинг по процесс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Центр подготовк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ВШГУ РАНХиГС был создан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Команда Центра уже обуч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Тульской, Мурманской,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ей, Подмосквья и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Обучение уже прошли более 1,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이 한국 기업 부른다

9월 1일 서울 노량진에 사할린투자진흥청 설치키로

【문헌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하면서 각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협력 대상을 찾아야 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이 유망한 협력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다녀왔고, 올해 8월에는 러시아 사할린을 살펴보고 왔다. 러시아 특히 사할린이 한·러 경제협력과 한국 기업 및 개인들의 투자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다.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한이 맺힌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사할린 탄광 채굴과 군수공장을 위한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고는 2차대전에 패전하자 이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철수하고 말았다. 그들은 항구에서 자신들을 데리고 갈 배를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배는 오지 않았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한인들은 사할린에 남아 맨손으로 열심히 일해 지금은 사할린 사회에

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한편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할린에 대한 투자는 1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7년에 사할린 골프장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는 실패했고, 2008년에 국내 모 증권사가 사할린 광산에 투자한 건은 약 3년 만에 10%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할린에 대한 투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러시아, 특히 사할린의 변화된 현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러시아 여타 지역과는 다른 사할린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할린 투자와 경제협력에 눈을 돌릴 시기가 왔다.

러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743달러(2017년)인데, 사할린의 1인당 GDP는 2만8500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만9744달러(2017년)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할린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채굴

및 임업, 어업이 주요 산업이다. 소련 붕괴 후 석유 불이 일어서 석유와 가스의 비중이 커졌다. 10여년 전부터는 석유와 가스가 공업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석유와 가스 덕분에 실업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는 계속 활황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동쪽 끝에 있는 주이며, 쿠릴 열도와 함께 러시아의 사할린주를 이룬다. 사할린 섬의 면적은 7만2492km²의 상당히 큰 섬으로, 러시아가 영유한 섬 중에서 가장 크다. 북부에서는 석유가 나고, 남부에서는 석탄이 난다. 러·일 전쟁 후 남반부는 일본 영토로 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러시아가 점령했다. 사할린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다.

그런데, 사할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된 낡은 주택에 살고 있어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한국형 고급 아파트를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스키장과 골프장 등 레저시설 개발도 원하고 있다. 한국인의 부동산 개발을 기다리는

망도 많다. 최근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방문했을 때는 시청 공무원이 시내 변화가의 주차장 부지를 안내해줬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시에서는 변화가 몇몇 곳을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고, 한국기업이 와서 주차빌딩을 짓고 주차장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차장 부지를 싸값으로 살 수 있으며, 주차장을 짓는 비용 일부도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한다. 사할린주는 한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1일 서울 노량진에 사할린투자진흥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을 방문하면 사할린 투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이사장 문상주)은 민간 차원에서 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게 4차 산업혁명 교육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문상주 이사장은 러시아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는 러시아 선수들이 입국할 때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응원을 해서 러시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할린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극동연방대학교가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협력도 할 수 있다. 극동연방대학교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도 가능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 강조하고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모 조찬 포럼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는 강연을 통해 러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러시아가 경제협력 유망 지역임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사할린으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 우리 기업들이 사할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사할린이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러 경제협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출처: 아주경제)

전 세계 한인정치인 한 자리에 모인다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8.27(화)~30(금) 서울에서 개최된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본 포럼은 올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16개국 60여명의 현직 한인인원을 비롯한 차세대 유망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 입양동포로 프랑스 정계에 진출한 요하임손 포르제 하원의원(83년생), 미국 메사추세츠주 하원의원 마리아 로빈슨(87년생), 미국 인디애나주 역사상 아시안계 최초로 당선된 크리스정 주하원의원(92년생), 재선에 성공한 알브레히트 준론 가우더터 독일 헤센주 카르벤 시의원(90년생) 등 지난 5차 포럼에 비해 차세대 정치인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고, 참가국수도 11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한인들의 거주국 내 정치력 신장 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포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포럼 둘째날(8.28), 특별강연으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미국 조지아 주의회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박의진 하원의원이 '동포사회의 거주국 정치참여 확대 및 차세대 정치인 육성방안'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고, 캐나다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인 연아마틴 의원, 마크 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포사회 기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한다.

참가자들은 29일 판문점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의지를 다진다.

한우성 이사장은 "동 포럼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은 물론 대한민국과 거주국 간의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По итогам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луч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нарезных батончиков стал Корсаков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 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Хлеб формовой из муки пшеничной, 1 сорта" был признан Холм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 Любители сладкого могут быть уверены в зефире "Кондитерской лавки" — компани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номинации. В состязании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олукопченой "Краковской" колбасы — пальма первенства у колбасного цеха "Сахалинский". Еще одну победу компания одержала в номинации "Колбаса вареная "Столовая, 1 сорт". Победа в номинации "Крылья куриные варено-копченые" досталась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С. Купцовой. Лучш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пастеризованного молока ста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В. Савинков. В номинации "Сметана" не нашлось равных крестьян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Мрия" и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Н. Зиминной. А образцовый кефир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изводя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 Савинков, Е. Грушка и А. Любинецкий.

Сам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адыгейский сыр жюри нашло у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Лидерство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лососевой икры забрали компании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 и "Парсах". Консервы рыбные "Скумбр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холодного копчения" лучше остальных производит компания "Меридиан". А рыболовецкий колхоз имени Кирова, по мнению жюри,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в изготовлении консервированных котлет из лососевых рыб, обжаренных в томатном соусе. Также в этой номинации победило "Янтарное". Компания стала лучшей 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салата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А в номинации пресервы рыбные "Сельдь тихоокеанская филе ломтики в горчичном соусе" победил "Сахалинпищепром".

Призеры конкурса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к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рекламе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размещать его на упаковке и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100 лучших товаров России".

사할린 주민 4명 중 한 명에게서 폐질환 발견

사할린에서 폐암 초기단계 발견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날 이 질환이 20명의 환자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보건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장관이 전했다.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해 무료로 저용량 컴퓨터 단층촬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폐암 발견의 최적의 방법이 다른 질환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다.

"하루 동안 80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중 2명이 종양으로 의심되었고 검진자 20명 이상에게서 다른 병리 현상이 발견되었다." 고 보건부 장관은 보고서에 적고 "병리 현상이 발견된 환자들을 검사하고 추가 진단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유슈크 장관은 55세 이상의 노년층, 장기간 흡연자, 가족 중 암환자가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위험군에 속한 모든 주민들에게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폐 단층촬영 검진은 전화 1-300번으로 전화하면 희망자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환자들은 진료소 진단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접수하며 검진 절차는 5분-7분간 소요된다. 9월 7일부터 검진은 4개 지역 - 돌린스크, 네벨스크,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크, 노글리키-에서 실시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할린주에 중앙 환자 중 대다수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너무 늦게 질환을 발견한 데 있다고 전했다.

У каждого четвертого обследованного сахалинца нашли патологии в легких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кампанию по выявлению рака легких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патологии выявили у двух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Юшу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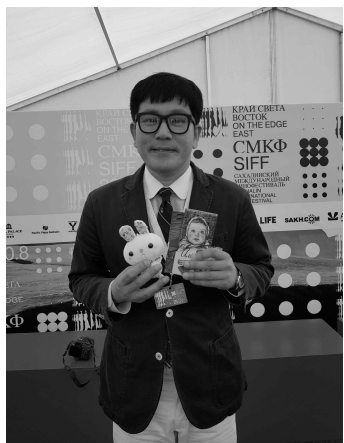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приглашают бесплатно сделать низкодозовую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легких — это самый эффективный метод выявления рака легких. Однако при этом можно обнаружить и другие заболевания.

— За один день обследовали 80 человек. У двух подозрения на онкологию. Более чем у 20 обследованных выявили другие патологические состояния, — написал глава минздрава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 Указанных пациентов берем на контроль и выполн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Юшук добавил, что минздрав планирует как минимум охватить обследованиями всех жителей из групп риска — людей старше 55 лет, курильщиков с большим стажем, тех, у кого в семье уже выявляли рак. Но записаться на томографию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по телефону 1-30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ациентов принимают кажд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в КДЦ, с 08:00 до 18:00. Процедура занимает всего 5-7 минут. А с 7 сентября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еще в четырех районах — Долин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и Ногликский.

По д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смертей приходится именно на рак легких. И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 слишком позднее его обнаружение.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영화 촬영을 앞두고 사할린 영화제를 다녀간 장형운 감독

와 얼룩소>의 장형운 감독이 초대되어 81분의 영화 상영 후 관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많은 질문에 답변했다.

애니메이션의 즐거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마법에 의해 소심한 얼룩소로 변해버린 '경천'. 영문도 모른 채 '소각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얼룩소 경천은 화장지 마법사 '멜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된다.

한편 수명이 다해 지구로 추락하던 인공위성 '일호' 역시 '멜린'의 마법으로 소녀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동물들과 얼룩소 경천을 팔아 넘기려는 사냥꾼 '오사장'과 마법에 걸린 사람들을 태워버리려는 소각자 등 검은 괴물들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데

과연 '얼룩소 경천'과 '로봇소녀 일호' 화장지 마법사 '멜린'과 맺돼지 '북쪽마녀'

까지 사상 최강의 마법드림팀은 악의 무리에 맞서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

검은 괴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주 최강 마법드림팀의 신기한 모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1914년에 개봉된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는 장 감독의 첫 장편이다. 각본도 직접 쓰고 캐릭터, 음악인도 직접 찾아다녔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 애니메이션 더빙에 최고의 스타 정유미와 유아인이 맡았다. 사할린 영화제에서도 러시아어로 더빙하기로 했다. 더빙은 프로피가 아닌 김 알리사와 김 알렉산드르 젊은이들이 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말도 들리고 제대로 번역된 대화도 잘 들렸다. 이에 장형운 감독은 놀라워하며 소리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사할린 관객들은 장 감독의 창작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

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얼룩소의 종이 의상에 대해, 노래와 음악 작곡가에 대해, 사할린 소감에 대해, 왜 주인공을 소로 선택했는지, 화장지를 마법사로 만든 이유 등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장 감독은 영화제에 초대받고 이 영화를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이 걱정했다며 영화상영 때 맨 뒤에 앉아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상영 시 누구도 나가지도 않았고 영화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려 '다행이다', '성공이다' 만족해 했다고 한다.

사할린에 온 다음 날 오호츠크해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다니는 아기곰을 보고 신기했고 사할린의 자연이 아름답다며 또한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사할린에 많은 동포들이 계시다는 것이 사할린 영화제에 꼭 가봐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주부터 장형운 감독은 새 영화 촬영에 들어가는데 이 큰 작업을 앞두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은 무리였다고 한다. 장형운 감독은 "사실 거절하려고 했는데... 초대받을 때 가봐야지, 제가 또 언제 사할린에 가볼 수 있겠나 해서 왔습니다."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서 관객들에게 설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한 장형운(1975년생) 감독은 군대 복무를 마치고 26세에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 도전했다. 장 감독에 따르면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군대 있는 동안 고민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서울 영화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서울종합예술대학에서 영화과 대학원 재학 중인 감독은 계속 영화제작을 배우고 있다.

사할린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간 장형운 감독의 작품에 '언제가는 사할린에 관한 이야기도 삽입되지 않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배순신 기자)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Реклама</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